

●●● 김선웅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장

## 산란계 불황, 의무자조금 실현으로 극복하자



▲ 김선웅  
봉림농장 대표  
대한양계협회 본회 채란분과위원장  
대한양계협회 이사

1년 넘게 지속되어온 산란계 호황이 끝나고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먼저 계란가격이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품행진을 하던 노계 가격도 300원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런 불황을 생산자들이 자초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란계 불황,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대한양계협회 김선웅 채란분과위원장을 만나 보았다.

산란계 불황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산란계 수수 10%이상 증가,  
노계 출하길 없어 답답하다**

정부 공식자료에 의하면 2005년 6월의 산란계 수수는 5,400만수로 전분기보다 5.9%,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전인 2003년 동기보다 10.8%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계란을 생산하는 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6월부터 하락한 계란가격은 5일 현재 111원으로 농가에 따라서는 생산비선이 안되게 거래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노계균을 도태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지만 지난달에는 복병아리 생산을 중단한 육

용종계 도태군에 밀려 산란계 노계 출하가 체화되어 계란가격과 노계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으로 하절기 계란 소비둔화와 적체된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전되게 노계를 처리할 대담(1.8kg이상) 전문 도계장이 절실합니다. 만약 7~8월에 노계도태가 효과적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산란계 환우 여파로 9월 추석경기이후 연말경기까지 불황의 골이 깊어 질 수 있습니다.

## 불황을 타개할 최선책으로 노계도태 및 계란 소비 방안은?

### 단기방안과 장기방안이 복합 적용되어야

노계 도계장으로 출하되는 노계 물량은 1일 10만수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산란농가 노계도태 수요량은 계절별로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이 빈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65주나 70주에서 산란계 계획도태와 산란계 전문도계장과 업무 연계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렌더링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란소비는 의무자조금의 조기 정착을 통한 대국민 소비홍보로 1인당 계란소비량을 늘려가야 되고, 단기적으로 계란체화를 없애는 것으로 각 농가마다 3% 수준의 계란을 모아서 없애거나 불우 이웃이나 북한에 전달하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 변화되는 계란유통분야에 있어 농가에서 준비할 사항은?

### 농가마다 적합한 계란판로를 선택해야

계란 시장은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란의 입지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료 회사를 포함한 대기업에서 계란유통업에 신규참

여하고 있어 산란계도 브랜드란 중심으로 계열화가 점차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유통시장 변화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계란품질 향상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각자 농가들은 규모에 맞는 사업 방향을 세우고 그에 따른 적절한 실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즉 계란 판매 루트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현재 대농가들은 생산과 유통을 겸비하고 있는데 중간규모 농가들은 유통 참여는 막대한 비용 발생과 경험 부족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중간규모 농가들이 불황기에는 계란을 판매하지 못하여 많은 고초를 겪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농가들은 각자 처해진 상황에 맞는 유통시장(GP, 벤더(Vendor))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채란분과위원장으로써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게 당부할 사항이 있다면?

### 농장 경영 발전을 위한 큰 틀 마련이 급선무이다

채란분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다 보면 각 지역별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지역별 생산, 유통현황을 위원들이 파악하여 오고 있지만 때로는 세밀한 정보 교환에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농가들이 상황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현실에 가까운 자료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이 때번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실현할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며, 매월 회의 때 난가 정보에 치중하기 보다는 사양, 질병, 경영, 홍보, 유통 기술의 발전의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변화의 큰 흐름에 적응하게 되며, 이렇게 점차 위원회에 참석하면 하나라도 얻어 가는 길이 마련된다면 조직은 자연스럽게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리 | 김종준 과장)